메디피스 연차보고서

MEDIPEACE 2018 ANNUAL REPORT

Medipea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존경하는 메디피스 후원자와 파트너 여러분!

2018년 메디피스는 활동 10년차가 되는 해를 맞아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의 현지 기여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현장 중심성의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고자 창립 이래 최초로 베트남 지부에는 현지인 지부장을 채용하였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프로젝트 수행에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현지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활동을 지속성 있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성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9년 메디피스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3명의 실무자와 300명 가량의 후원자들로 조촐하게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끝없는 변화를 통해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 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다가올 10년에는 본래의 정체성에 더욱 충실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메디피스의 비전과 정신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 주셨던 고마운 시민들의 뜻을 보다 잘 이행하는 NGO가 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디피스 사무총장 신상문

2018 메디피스 활동 지도

볼리비아
- 엘알토 한국병원 3차 지원 프로젝트

파라과이
- 산페드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사후평가 프로젝트

세네갈
-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 프로젝트
-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사업기본설계

베트남

-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
- 중부지역 물리치료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필리핀

- 도서산간지역 공공병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피지

- 디지털 보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년간 성과 중심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탄자니아

- 무와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

2018년 메디피스는 세계 7개국 의료소외지역에서 9개 국제보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구촌 이웃들의 건강할 권리를 지켰습니다.

베트남 중부지역 꽝찌성은 베트남전쟁 당시 집중 살포된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선천성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활치료 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꽝찌성 내 장애아동들은 제대로 된 재활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에 메디피스는 지난 2012년부터 꽝찌성 내 지역 1차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재활 소외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 장애 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

장애아동 데이케어센터 신축 및 운영 지원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165명의 장애아동이 재활 및 돌봄 서비스를 받았으며, 1곳의 신규 데이케어센터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장애아동 부모 재활 교육 제공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북 배포

장애아동 부모 376명을 대상으로 재활 교육을 제공하고 350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북을 배포했습니다.

가정 방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아동 494명에게 가정 방문형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기초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지원

103명의 지역사회 보건요원이 기초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보조기구 지원

72명의 장애아동들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재활 보조기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중부 지역 물리치료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자격증 과정)

20명의 학생이 10개월 코스의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치료사 보수교육 과정 운영

37명의 학생이 3개월 코스의 지역사회 재활치료사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재활치료 기자재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꽝찌성 내 보건소 2곳에 재활치료 기자재 7종을 지원했습니다.

다국적 팀 운영의 핵심은 신뢰와 대화

Ho Sy Quang 박사는 공중보건 전문가로, 2018년 6월 메디피스 사상 첫 현지인 지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5년간 베트남 중부 지역의 보건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 헌신해 온 그가 말하는 인도주의적 국제보건, 그리고 베트남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조직의 리더로서 갖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메디피스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게 되셨나요?

1990년대 베트남에서는 국제 NGO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지역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저는 베트남 중부에서 국제 NGO들이 펀딩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제 NGO들과 지역사회에서 몇 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공중보건에 매료되어 결국 공중보건 전문가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25년간 국제 NGO와 대학, 베트남 정부와 함께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장애인, HIV 감염인, 빈곤 가정, 소수민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 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와는 베트남의 장애아동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어 미팅이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메디피스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 계기로 메디피스의 지역사회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 처음 메디피스 팀에 합류했을 때 기관 역사상 첫 현지인 지부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임하시면서 스스로 또는 지부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첫 현지인 지부장으로서 특별히 느낀 부담은 없었어요. 현지 지부와 한국 본부에서 직원들이 따뜻이 환대해 주고 세심히 안내해 줘서 처음부터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지부 직원들 모두가 의욕이 넘치고 메디피스의 미션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는 걸 느꼈는데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를 세웠는데, 첫째는 메디피스 베트남 지부가 베트남 사회에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펀딩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메디피스의 다른 팀들 및 국제 보건 커뮤니티와 우리의 혁신 모델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메디피스 베트남 지부는 베트남 현지인 직원들과 한국인 파견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다국적 팀을 이끄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문화나 언어의 차이 때문에 간혹 오해가 발생할 때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 내 신뢰 구축을 위해 직원들과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꼭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 재활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부족 외에 꽝찌성의 주요 보건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꽝찌성에서는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각 마을에는 5천 명에서 만 명 가량의 주민들을 커버하는 보건소가 있지만, 서비스 수준이 낮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마을 거주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멀리 시내나 대도시의 상급의료기관을 찾아 가는데, 이로 인해 병원들에서는 한 병상을 두세 명의 환자가 나눠 쓰는 등 과밀 현상이 심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마을 보건소는 실제 보건소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패키지의 50%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빈곤층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에서 메디피스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특색으로 내세우는데요. 이 점이 해외 지부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메디피스는 종교 기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정부 섹터, 민간 섹터를 비롯해 민감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메디피스는 베트남에서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디피스만의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재활 서비스 모델을 보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부장님이 그리는 메디피스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메디피스가 베트남의 장애인들, 특히 장애아동들을 위해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재활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NGO가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메디피스 후원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디피스에 보내 주시는 사랑과 후원은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단히 값진 연대의 표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메디피스는 모두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는 지구촌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베트남 장애아동 데이케어센터

메디피스 베트남지부 Ho Sy Quang 지부장

메디피스는 지난 2012년부터 베트남 중부 꽝찌성에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젝트를 통해 1,200명 이상의 장애아동들에게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400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가정 내 재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 당국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아동 부모들이 건강, 교육, 사회, 생계 및 임파워먼트의 5개 요소를 아우르는 포괄적 재활 모델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보이고 있는 접근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데이케어센터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메디피스는 현재까지 꽝찌성에서 10개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140여 명의 장애아동들에게 매일 재활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를 통해 꽝찌성에 도입된 데이케어센터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기다리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케어센터 이용 장애아동 부모 15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모든 부모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아동 가정 열다섯 집 중 메디피스 데이케어센터를 만나기 전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해 자녀를 특화된 재활센터에 데리고 간 경험이 있는 가정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실제 지역 내 장애아동 중 상당수는 오랜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접하지 못한 채 살아 왔습니다. 재활센터들은 지역사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빈곤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재활센터에 다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장애란 몇 년이고 견뎌 내야만 하는 만성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메디피스의 데이케어센터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데다 실력 있는 치료사들이 정성껏 돌봐 주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부모들은 치료사들을 신뢰하며 자녀의 재활치료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메디피스는 현지 시민단체인 마을보건봉사자협회(Village Health Volunteers' Association)와 협력 관계를 맺고 협회 소속 봉사자들이 데이케어센터에서 보육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봉사단원으로 파견된 물리치료사들과 현지 물리치료사들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찾아 보건 봉사자들과 장애아동 부모들과 함께 치료를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의 기술적 조언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메디피스의 이러한 기술 지원 네트워크는 베트남이 특히 취약한 재활 특화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대로 활용하는 것의 예를 보여줍니다. 현지인 치료사와 한국인 치료사로 구성된 다분야 팀은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학,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물리치료사들은 현지 치료사들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응용행동분석,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다양한 유용한 기법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의 결과로 데이케어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장애아동 가정의 수가 2배 증가했고, 특히 하이즈엉 데이케어센터에서는 3배 이상 늘기도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메디피스는 부모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여 각 그룹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재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들로부터 집에서 자녀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부모들은 메디피스가 제공하는 보조기구나 장난감 같은 것을 제공 받아 가정 내 재활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 자조모임은 매달 모여 경험담을 공유하고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서로를 돕기도 합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조모임 만족도를 5점 만점에 4.6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부분은 자녀와 가족의 삶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디피스가 조사한 지역 내 장애아동 프로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한 장애아동 2/3는 한 가지 이상의 측면에서 능력이 계발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장애아동들은 일상 생활 속 활동을 스스로 해내거나 지역 내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메디피스는 더 많은 꽝찌성 장애아동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3곳의 새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보조기구 라이브러리나 아이패드 활용 등 다양한 재활치료 기법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년 이내에 메디피스는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모델의 성과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베트남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주목을 끌어 베트남 전역 빈곤 지역들에 데이케어센터를 보급할 수 있는 자원이 동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와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

모자병동 감염관리 지원

모자병동에 감염관리 물품을 제공해 6,533명의 신생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병원 내 신생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9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원내 감염관리팀 활동 지원

무와나냐말라 병원 원내 감염관리팀의 활동을 지원하여 병원의 감염관리 평가 점수가 2017년 39점에서 2018년 52.3점으로 약 34% 향상됐습니다.

무와나냐말라 병원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키논도니 및 우붕고 지구 주민 200만여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2차 종합병원입니다. 지역 내에서 2차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모자보건 전문 입원병동을 갖춘 곳이라 이곳에서 이뤄지는 분만 건수만 한 달에 1,000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매달 2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감염 질환, 분만 중 손상 등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메디피스는 무와나냐말라 병원 및 지역 내 하위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인력 손 위생 실천 역량 강화

총 129명의 병원 인력이 손 위생 교육을 수료했으며, 표준 손 위생 실천 비율이 2017년 7.5%에서 2018년 82.8%로 크게 늘어나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위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6개 하위의료기관 내에 21인의 감염관리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고 의료진과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초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필리핀 중서부 웨스턴 비사야스 지역 주민들은 민간의료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공공병원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병원 내 보건정보시스템이 미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응급의학 전문의의 수가 적어, 병원마다 응급 치료 역량을 키우고 구급차를 활용한 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디피스는 일로일로 주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정부 기관 및 공공병원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산간지역 공공병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

국내 불용 구급차 지원

사용 연한이 남은 국산 중고 구급차를 수리하여 알레오산 지역 병원 및 바로타크 지역 병원 등 2개 지역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병원 보건정보 데이터 관리 워크숍 지원

12개 지역 병원 소속 행정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병원 보건 정보 시스템 데이터 질 관리 워크숍을 수행했습니다.

의료인력 대상 트라우마 관리 교육 제공

12개 지역 병원 소속 의료 인력 60명을 대상으로 응급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관리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학교 보건실이 좋아졌어요!

– 일로일로 주 학교 보건실 지원

학교에 보건실이 없다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1차적으로 대응하고, 아프거나 다친 학생들이 제대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보건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은 일정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체로 모여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인 만큼, 이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건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에 메디피스는 필리핀 일로일로 주의 요청으로, 보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건강권뿐 아니라 교육권까지 침해 받고 있는 산티아고 고등학교와 니코메데스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보건실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두 고등학교는 인근에 다른 학교들이 없어 인접한 3개 관할구역의 학생들을 모두 받고 있는데요. 병원 등 의료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학교가 일차보건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여 아픈 학생들이 찾아올 때 간단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도구나 약품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디피스는 산티아고 고등학교와 니코메데스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보건실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의약품과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물품, 체온계와 혈압계, 들것, 약품 캐비닛 등의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교실 한 켠에 칸막이를 세워 두고 간이 보건실처럼 쓰던 예전과는 달리, 별도의 널찍한 공간을 마련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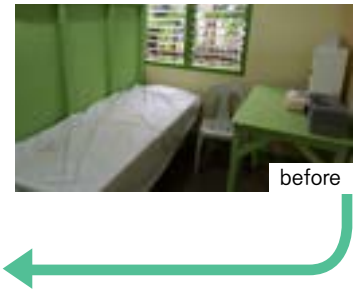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지껏 보건실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없었는데, 메디피스 덕에 학생들이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건강을 지켜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고등학교 Winna Maris A. Penas 선생님

사진 제공: Santiago National High School Santiago, Barotac Viejo, Iloilo

▲ 개선된 산티아고 국립 고등학교 보건실 모습

▲ 니코메데스 국립 고등학교 보건실에 지원된 응급 의료 물품



세네갈 중부는 깨끗한 식수 확보 문제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우물이 없는 마을도 많고, 있더라도 수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메디피스는 식수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식수탑을 세우고,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가정 내 개량된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끄는 보건위생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중부 지역 식수위생 개선 프로젝트

식수공급시설 구축

카올라크 주 다라보스 지역 내 6개 마을에 식수공급시설 1기 구축이 완료되어 약 1,700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5월까지 총 6기의 식수공급시설이 추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개량된 화장실 공급

카올라크 주 다라보스 지역 내 6개 마을에 거주 중인 가구 100곳에 개량된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로 인한 식수 오염 및 수인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보건위생 교육 제공

지역 위생 전문가 및 보건 전문가 워크숍, 마을 보건 요원 훈련, 주민 교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카올라크 주, 파티크 주, 티에스 주 등 3개 주 내 91개 마을 주민 36,511명이 생활 속 보건 및 위생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마을 사람들 건강은 내가 지킨다!

세네갈 마을 보건 요원들이 말하는 주민 보건위생 교육

Astou Gueye (AG):
Keur Aymerou 마을 보건 요원

Ibrahima Thiombane (IT):
Keur Malle 마을 보건 요원

■ 마을 보건 요원으로서 평소에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AG: 모자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산전케어와 산후케어뿐만 아니라, 생후 3개월에서 2살 사이의 아동들에 대해 체중이나 섭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생후 6개월에서 5살 사이의 아동들의 비타민 섭취와 구충 관리 등을 책임집니다.

IT: 가정 방문과 건강 정보 제공, 보건 교육 등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 활동을 수행합니다. 위생이나 소외열대질환, 산전 진료, 산후 진료, 가족 계획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메디피스와 함께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G: 화장실 관리, 식수 위생, 식수 절약, 주변 환경 위생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IT: 환경 위생, 개인 위생, 의복 위생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 주민 교육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AG: 주민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을 하러 다시 방문했을 때 저의 조언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IT: 교육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큰 열의를 보이고 손은 언제 어떻게 씻으면 좋을지 등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보람 있다고 느꼈습니다.

■ 담당 마을에서 가장 심각한 보건 이슈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G: 식수 부족이요. 식수탑 설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IT: 아직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한 집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결과 1월 말까지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번 주민 보건위생 교육은 전문가 워크숍,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한 마을 보건 요원 트레이닝, 그리고 트레이닝을 이수한 마을 보건 요원에 의한 주민 교육으로 총 3단계에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G: 식수 위생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마을 보건 요원으로서 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보탬이 되었어요. 교육 대상 주민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IT: 교육 대상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습니다. 교육의 결과로 마을들이 예전보다 깨끗해졌어요.

■ 3차까지 주민 교육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건 교육의 결과로 대상 마을들에 나타난 변화가 있었나요?

AG: 12월부터 1월 사이에 5세 미만 아동들의 설사 발병률이 줄어들었어요.

IT: 사람들이 손을 더 많이 씻기 시작했어요. 위생 위원회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을 보건 요원: 전문 의학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라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세네갈에서는 릴레(Relay)라고 불립니다.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병원 서비스 강화

엘알토 한국병원 3차 지원 프로젝트

볼리비아 엘알토 시의 엘알토 한국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의료시설이지만, 최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환자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주요 과목인 산과와 신생아 진료 수요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메디피스는 엘알토 한국병원 3차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3병동 신축을 위한 설계 완료
- 병원 인력 1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실시
- 귀국 연수생에 의한 병원 인력 대상 사후 전달 교육 실시
- 병원 운영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 1, 2, 3차 병동 간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배치 방안 수립

세네갈 중부 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17. 12 ~ 2018. 06)

신규 후보 사업인 세네갈 중부 지역 모자보건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하여 기초선 조사를 통해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총 3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모자보건 현황 파악 및 문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지역주민 850가구 대상 설문조사 실행
- 보건의료 인력 및 마을 지도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 실시

파라과이 산페드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사후평가
(2018. 05 ~ 2019. 0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행된 파라과이 산페드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파라과이 최빈 지역 중 하나인 산페드로 주 산타로사 지역에 전원 병원 및 교육 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3차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이었습니다. 메디피스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측정하고, 타 유사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 국내 문헌 조사
- 현지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 현지 현장 실사

메디피스 서포터즈 1기 (2018. 02 ~ 04)

메디피스의 활동과 가치에 공감하는 일반시민이 직접 메디피스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메디피스 서포터즈 1기가 모여 3개월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메디피스 서포터즈는 자신만의 언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메디피스를 다른 시민들에게 알리는 미션을 부여 받았는데요.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인도주의 활동과 국제보건에 관련된 교육을 듣고, 개인 SNS 계정을 활용하여 메디피스의 프로젝트들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에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모두를 위한 건강'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건강권의 중요성과 메디피스의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베트남 필드스터디 (2018. 02)

메디피스와 대구한의대학교, 꽝찌성 보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웰니스 HSE 전문인력 베트남 필드스터디〉가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필드스터디는 대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프로그램에는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및 건축디자인학부 재학생 35명과 인솔교수 4명, 현지 꽝찌성 보건대학 재학생 12명 및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다학제간 융복합 학습을 수행하고,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써 국제행사 체험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꽝찌성 보건대학, 꽝찌성 종합병원, 여린현 재활센터, 하이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인터뷰, 환경 분석, 모델링 및 평면도 제작 등의 방식으로 학습 수행
- 꽝찌성 보건대-대구한의대 공동 컨퍼런스를 통해 각 조별 조사 및 학습 내용 발표
- 현장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 (2018. 07)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권 감수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3회를 맞이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양일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교사 43명,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생 및 교수 13명 등 총 56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해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찌에우퐁현 중학교 학생들과 야영 천막 꾸미기, 놀이 활동
- 여린현 재활센터 치료실/교육실 청소, 놀이치료 장난감 제작 및 전달
- 자선바자회_수익금(한화 약 34만원)은 현지 비영리단체 꽝찌자선회(QCA)에 기부
- 꽝찌자선회에서 한-베 음식 만들어 먹기, 장기자랑 등 문화교류 활동
- 현지 문화 역사 체험

Anne Doromal님(왼쪽에서 두 번째)은 2013년부터 메디피스의 필리핀 프로젝트에 현지 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는 소통하기 편한 단체, 함께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 필리핀 일로일로 주 정부 소속 메디피스 코디네이터 기고

* 이 글은 주인공 Anne Doromal님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일로일로 주 정부 병원관리국에서 4급 위생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앤 도로말(Anne Marie B. Doromal)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메디피스의 프로젝트에 현지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메디피스가 일로일로 주 소외 지역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의 기초선조사를 수행하러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인연을 맺게 되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NGO들과 일해 봤지만, 메디피스와의 협력은 다른 기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메디피스 직원들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데다가 마음이 열려 있고 긍정적이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고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현지 파트너들의 노고를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도 메디피스는 특별한 곳입니다. 일은 현지인들이 하고 공은 본부에서 가져가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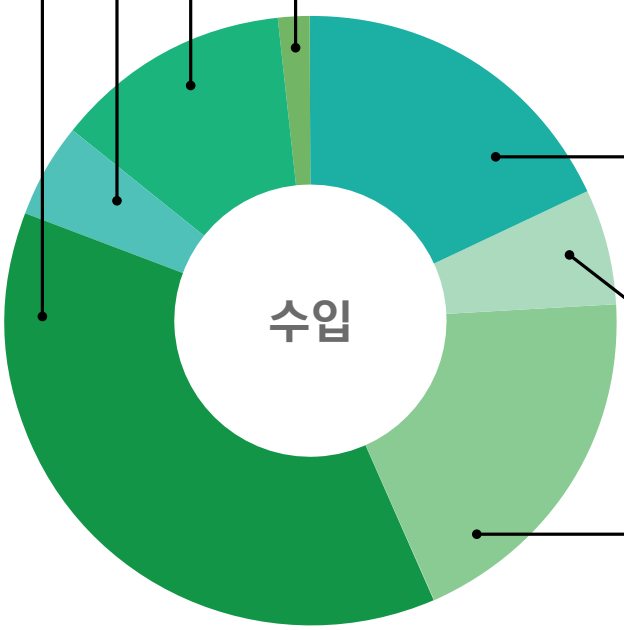
정부의 입장에서 NGO인 메디피스와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메디피스는 일로일로 주내 주립 병원 및 지역 병원들에 구급차를 지원해 주고, 병원 의료 인력을 위해 소생술 교육과 트라우마 관리 교육, 병원 내 보건 정보 데이터 질 관리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의 경우 필리핀 보건부에서 지정한 요건에 전부 부합하도록 모든 장비를 완비하여 제공했는데, 이렇게 모든 요건을 갖추어 지원을 한 NGO는 메디피스가 유일합니다.

메디피스는 필리핀에 따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년간 함께 일하며 한 번도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늘 열려 있어 이곳에 상주하는 파견 직원이 없어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투명하게 소통하기만 한다면 자체 필드 에이전트가 없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로일로 주에는 응급의료 외에 다른 분야의 보건 문제들도 있지만, 그 중 특히 병원 정보 시스템 부족 문제는 NGO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로일로 주 병원들은 병원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의무 기록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지 않는 데다 물품 목록과 환자 정보까지 전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와 함께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이런 분야에서 협력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올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일로일로 주와 함께 일하는 것에서 메디피스도 행복과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로일로 주의 병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메디피스 수입의 24%가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구촌 모든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7억
인도주의 해외프로젝트

1.2억
기타사업수익

2.9억
전기이월금

0.4억
기타 수입
(이자 수익, 차입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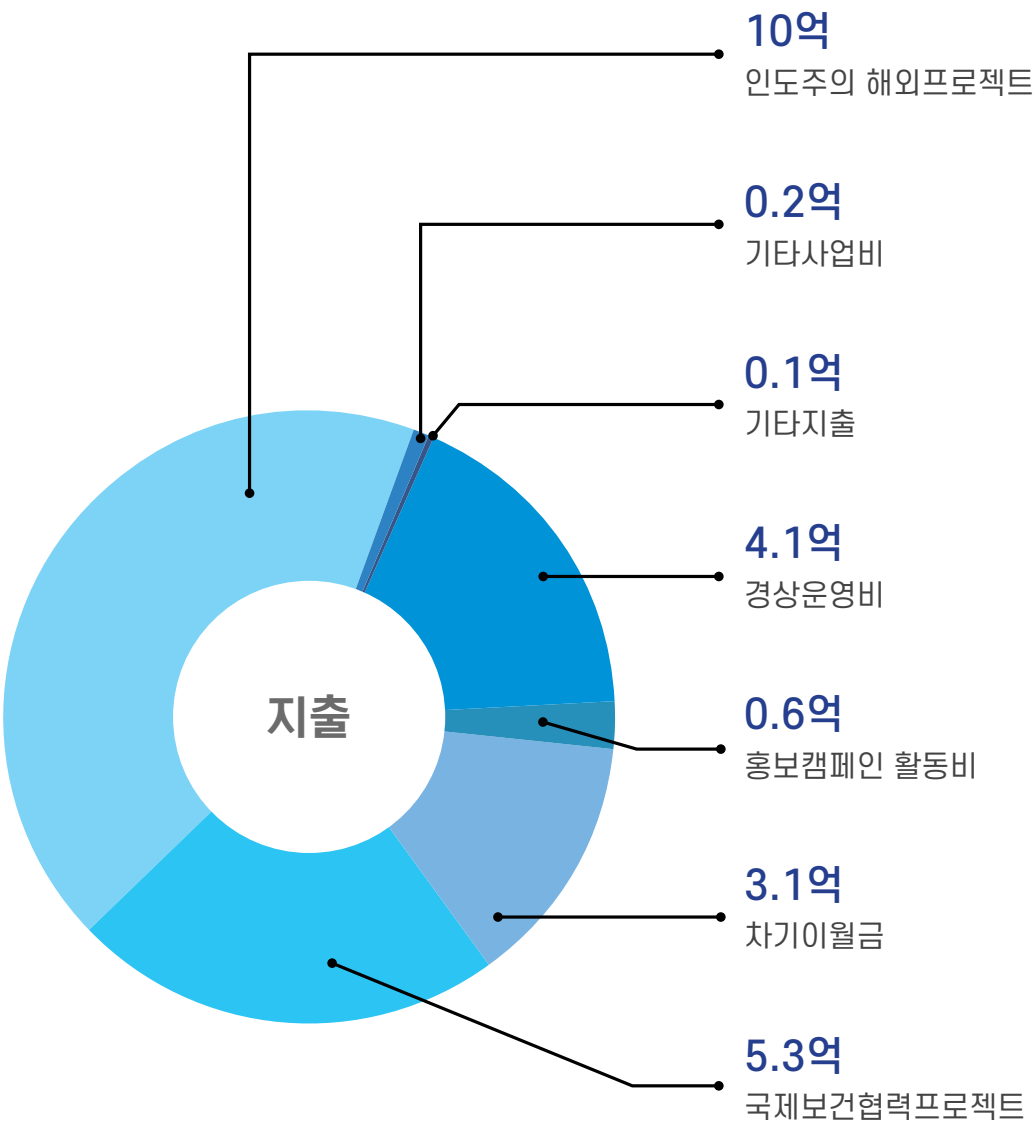
4.2억
정기후원금

1.4억
비정기후원금
(일시후원, 온라인후원 등)

4.5억
국제보건협력프로젝트

2018년 메디피스는 전체 실지출액의 77%를 지구촌 의료소외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보건 프로젝트에 사용했습니다. (*차기이월금 제외)

더욱 자세한 수입 • 지출 내역은 메디피스 웹사이트의 재정보고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s://medipeace.org/financial-report)



2018년 후원자 명단

2018년 한 해 동안 총 3,180명의 후원자님들이 메디피스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디피스에 월 정기후원 약정을 통해 기부해 주신 분들과 후원계좌로 직접 일시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만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지면 관계상 명단에 실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성은	강승희	강혜지	고은홍	권기웅	김건휘	김다솔	김문찬	김민주	김선우	김수연	김양자	김옥연	김은주	김정우
강경근	강시원	강혜진	고은희	권기준	김건희	김단우	김미경	김민주	김선재	김수연	김양희	김완수	김은지	김정우
강경림	강신중	강효진	고은희	권나연	김경룡	김단희	김미경	김민지	김선정	김수영	김어진	김용섭	김은진	김정욱
강경식	강아름	강희경	고인경	권나현	김경미	김달해	김미라	김민지	김선진	김수윤	김연이	김용훈	김은진	김정원
강귀옥	강연수	경천	고정태	권남현	김경미	김달호	김미라	김민지	김선희	김수은	김연정	김우빈	김은필	김정원
강기연	강연주	계강준	고주연	권내림	김경미	김달희	김미래	김민지	김선희	김수정	김연지	김우현	김은하	김정원
강기호	강영석	고경림	고주현	권다혜	김경민	김대근	김미리	김민지	김성경	김수정	김연하	김원석	김은혜	김정은
강나연	강우정	고경욱	고준영	권달호	김경민	김대기	김미숙	김민지	김성수	김수지	김영균	김원준	김은혜	김정이
강나현	강유미	고경임	고지연	권명희	김경아	김대중	김미양	김범수	김성영	김수진	김영근	김원진	김은혜	김정임
강다연	강유민	고경호	고진휘	권문희	김경자	김대호	김미연	김범준	김성용	김수진	김영란	김원택	김은희	김정한
강다영	강유진	고경희	고평숙	권민지	김경찬	김대희	김미영	김범중	김성욱	김수진	김영민	김유경	김은희	김정호
강다윤	강유진	고광석	고하음	권새힘	김경하	김덕련	김미정	김병만	김성은	김수진	김영빈	김유량	김의권	김정화
강대준	강윤영	고기훈	고현준	권소윤	김경현	김덕수	김미정	김병삼	김성은	김수진	김영선	김유리	김이루	김정환
강도윤	강윤호	고다온	고현지	권순형	김경화	김도연	김미정	김병수	김성은	김수진	김영선	김유리	김인영	김정환
강명길	강은경	고동현	고혜민	권순희	김경훈	김도연	김미정	김병철	김성주	김수진	김영수	김유미	김인영	김정훈
강명수	강은숙	고명복	고혜선	권영대	김경희	김도해	김미정	김보경	김성진	김수찬	김영수	김유빈	김인혜	김정희
강명희	강은정	고명희	고혜선	권영민	김경희	김도훈	김미정	김보경	김성찬	김수현	김영숙	김유진	김일하	김정희
강무진	강은주	고미옥	고효정	권영범	김계영	김동건	김미진	김보경	김성현	김수현	김영애	김유찬	김임숙	김정희
강문빈	강은한	고미향	고희주	권영아	김고은	김동균	김미진	김보경	김성현	김수현	김영원	김유현	김잎새	김정희
강미리	강인혜	고민경	공동현	권예인	김관우	김동석	김미현	김보람	김성현	김수현	김영은	김윤경	김자영	김정희
강미숙	강재영	고민정	공미성	권오성	김광현	김동숙	김미현	김보미	김성현	김수형	김영은	김윤선	김재광	김정희
강미해	강재호	고민지	공병용	권오혁	김교령	김동언	김미화	김보영	김성혜	김수혜	김영인	김윤웅	김재구	김젬마
강민경	강정아	고민지	공재민	권용재	김국희	김동영	김미희	김보윤	김성희	김수희	김영자	김윤지	김재균	김조영
강민구	강종호	고병열	공태민	권용진	김규리	김동임	김민경	김보현	김세웅	김숙자	김영자	김윤지	김재성	김종란
강민서	강주영	고보경	공형두	권유나	김규리	김동혁	김민경	김보현	김세원	김숙희	김영재	김윤지	김재숙	김종민
강민석	강주현	고복임	곽도영	권유리	김근민	김동호	김민권	김봉언	김세희	김순미	김영진	김윤진	김재원	김종서
강민연	강주희	고석만	곽동민	권윤서	김근범	김동호	김민서	김봉찬	김소라	김순옥	김영진	김윤호	김재원	김종우
강범석	강준오	고석범	곽세하	권은숙	김근현	김동환	김민서	김부선	김소라	김순희	김영화	김윤희	김재한	김종현
강병진	강지미	고석준	곽영민	권은영	김근호	김동환	김민서	김사랑	김소리	김슬기	김영훈	김은경	김재현	김주안
강보규	강지연	고선미	곽영화	권은화	김근호	김동환	김민석	김상규	김소미	김승규	김영희	김은경	김재홍	김주영
강복순	강지웅	고선자	구경민	권정민	김기남	김동휘	김민선	김상규	김소미	김승로	김영희	김은봉	김재희	김주영
강서준	강지원	고순종	구광서	권정화	김기연	김동휘	김민선	김상임	김소연	김승미	김예선	김은서	김정	김주완
강석우	강지은	고승지	구나연	권지미	김기은	김든솔	김민섭	김상혁	김소연	김승민	김예슬	김은숙	김정남	김주찬
강석훈	강지희	고승희	구민우	권지영	김기태	김리나	김민성	김서연	김소영	김승범	김예슬	김은숙	김정명	김주환
강선영	강진실	고아름	구민정	권칠봉	김기혁	김만수	김민성	김서연	김소원	김승빈	김예슬	김은숙	김정미	김주희
강선주	강진아	고영국	구아군	권태정	김기홍	김말분	김민성	김서준	김소원	김승연	김예영	김은숙	김정미	김준경
강성문	강채린	고영란	구은	권한나	김기환	김명광	김민수	김석현	김소정	김승정	김예온	김은아	김정민	김준구
강성욱	강채영	고영준	구은영	권해경	김나미	김명동	김민수	김석홍	김소현	김승주	김예은	김은아	김정민	김준서
강성필	강철우	고영철	구은회	권현경	김나영	김명선	김민수	김선규	김소현	김승희	김예주	김은아	김정선	김준섭
강성희	강초희	고예린	구자명	권현서	김나현	김명선	김민아	김선미	김소희	김시연	김예지	김은영	김정숙	김준영
강성희	강필수	고요한	구정례	권현아	김나현	김명수	김민영	김선미	김수경	김시현	김예지	김은영	김정순	김준영
강소라	강하은	고유미	구하라	권현지	김나현	김명숙	김민영	김선아	김수경	김시현	김예지	김은영	김정아	김준우
강소정	강한별	고유진	구현아	권혜진	김남경	김명숙	김민정	김선양	김수미	김신덕	김예진	김은재	김정아	김준태
강수빈	강해연	고윤미	구혜진	권호준	김남권	김명화	김민정	김선영	김수민	김신비	김예진	김은정	김정언	김준형
강수진	강현아	고은경	구회범	금진성	김남숙	김명환	김민정	김선영	김수민	김신주	김예진	김은정	김정연	김중곤
강수희	강현진	고은서	권강	기선아	김남영	김명희	김민정	김선영	김수빈	김아랑	김예찬	김은정	김정연	김중수
강숙희	강형석	고은정	권규태	길준임	김남희	김명희	김민정	김선영	김수빈	김아름	김예형	김은정	김정연	김지선
강순복	강혜린	고은정	권금유	김강현	김남희	김문광	김민정	김선옥	김수빈	김아미	김예희	김은주	김정엽	김지승
강순향	강혜연	고은주	권긍록	김건우	김다솔	김문주	김민정	김선용	김수연	김애정	김옥선	김은주	김정요	김지언

김지연 김철 김현우 김희원 마영준 박경현 박서현 박연하 박주영 박혜미 백승훈 서연정 성진형 송윤정 신은경
김지연 김철효 김현우 김희은 마원철 박계선 박석진 박연화 박주은 박혜선 백옥석 서연지 성채영 송은지 신은영
김지영 김철희 김현자 김희정 맹륜재 박계자 박선아 박영신 박주재 박혜원 백원성 서영래 성혜란 송은하 신은지
김지영 김춘희 김현정 김희주 모성숙 박고운 박선애 박영옥 박준범 박혜정 백은경 서영웅 손경민 송인숙 신은혜
김지영 김충원 김현정 김희진 모유진 박관진 박선영 박영은 박준영 박혜진 백은채 서우정 손경아 송인아 신익태
김지영 김태건 김현정 김희진 문가영 박규리 박선영 박영주 박준우 박혜진 백인정 서위경 손규수 송재연 신일화
김지영 김태광 김현정 나대운 문경실 박금녀 박선영 박영준 박준우 박환철 백종은 서윤정 손나리 송정림 신재경
김지영 김태권 김현정 나수진 문귀필 박금숙 박선영 박옥경 박준희 박후영 백종청 서윤지 손명희 송정준 신재희
김지우 김태균 김현주 나승현 문미라 박기남 박선우 박옥선 박지만 박희애 백지연 서은경 손미숙 송주희 신점숙
김지우 김태열 김현주 나태권 문미라 박기휘 박선욱 박용현 박지민 박희영 백지연 서은영 손미숙 송지유 신정숙
김지원 김태우 김현주 나하나 문미순 박길선 박설미 박원형 박지선 박희정 백지은 서은지 손보경 송진경 신정임
김지유 김태욱 김현주 나현승 문보라 박나연 박성미 박유숙 박지수 박희준 백지해 서은희 손빈 송진혁 신정훈
김지윤 김태윤 김현지 나혜심 문상훈 박나연 박성민 박유정 박지숙 박희진 백지혜 서인영 손성호 송현주 신주은
김지은 김태일 김현진 나혜영 문서희 박다솔 박성민 박유현 박지아 반효진 백진희 서인영 손세라 송혜지 신준우
김지은 김태임 김현진 남궁명 문석준 박다슬 박성아 박은경 박지연 방선덕 백채은 서재훈 손세민 송희연 신준호
김지은 김태정 김현화 남궁창 문석환 박다원 박성원 박은경 박지영 방소정 백향주 서정란 손세정 송희지 신지수
김지은 김태준 김형미 남기선 문선영 박다정 박성자 박은규 박지완 방슬빈 백현민 서정아 손수진 쇼쿠팡 신지수
김지은 김태준 김형섭 남다름 문성원 박다혜 박성찬 박은미 박지원 방승현 백혜림 서정욱 손승배 신강욱 신지영
김지은 김태현 김형우 남미숙 문성천 박대원 박성철 박은미 박지원 방정혜 변다온 서정은 손영우 신교훈 신진성
김지해 김태희 김형주 남민우 문성현 박대혁 박성현 박은영 박지원 방지예 변명옥 서정희 손예슬 신금자 신창엽
김지현 김필옥 김형철 남수진 문성호 박도연 박세나 박은영 박지인 방현영 변미화 서종숙 손용훈 신기철 신철
김지현 김하나 김형춘 남신영 문소리 박도영 박세진 박은예 박지인 방현지 변민수 서주영 손유미 신동민 신충식
김지현 김하나 김혜경 남윤상 문수라 박동숙 박세진 박은원 박지현 방효진 변수지 서주완 손윤하 신동섭 신현
김지현 김하늘 김혜라 남인숙 문수연 박동진 박세현 박은정 박지혜 배규담 변신희 서준서 손은수 신동윤 신현동
김지현 김하람 김혜린 남정훈 문수지 박만재 박소민 박은주 박지혜 배기선 변용미 서준오 손은지 신동혁 신현철
김지혜 김하연 김혜림 남철현 문시라 박명화 박소연 박은주 박지혜 배만종 변정훈 서지영 손은희 신명균 신현희
김지혜 김하영 김혜미 남초롱 문신영 박미선 박소영 박은지 박지호 배명희 변현택 서지유 손인호 신명숙 신혜경
김지혜 김하영 김혜미 노서영 문영자 박미선 박소영 박은지 박지희 배민진 변형석 서지은 손재이 신미경 신혜수
김지후 김하율 김혜빈 노수지 문용철 박미숙 박소영 박은혜 박지희 배병인 부민석 서지행 손정국 신미식 신혜원
김지훈 김하은 김혜빈 노승수 문윤옥 박미연 박소영 박은혜 박진영 배병철 부소현 서지훈 손정향 신민경 신호승
김지희 김하정 김혜연 노시정 문윤재 박미예 박소진 박은희 박진영 배성곤 부승현 서창영 손정화 신민지 신효경
김진규 김학철 김혜연 노연승 문은숙 박미향 박소진 박이슬 박진영 배세은 부애란 서채영 손주희 신병현 신휘재
김진승 김학호 김혜영 노유경 문은지 박미현 박소현 박인정 박진영 배세진 부영자 서혜령 손지현 신부선 심경학
김진영 김한나 김혜원 노은송 문의경 박미현 박소현 박인희 박진우 배수용 빅히또 서홍규 손지혜 신상명 심규은
김진영 김한나 김혜인 노인엽 문일상 박미화 박소현 박재언 박진주 배영례 빈경욱 서홍점 손한별 신상문 심선미
김진우 김한민 김혜인 노주원 문주리 박민경 박수근 박재영 박진진 배예슬 빈성오 석규화 손해미 신서현 심승렬
김진우 김한비 김혜인 노해옥 문주연 박민숙 박수인 박재완 박진홍 배옥미 서가영 석윤정 손혜정 신선경 심연희
김진욱 김한솔 김혜진 노현우 문지은 박민영 박수정 박재윤 박진화 배은미 서경숙 석지호 손화신 신성경 심은성
김진유 김한솔 김혜진 도규리 문지혜 박민준 박수진 박재은 박찬숙 배인경 서경애 선병하 손효남 신성호 심재덕
김진현 김한솔 김혜진 도상윤 문진혁 박민지 박수진 박재형 박창현 배종빈 서규연 선우경 송가영 신성희 심재연
김진호 김항우 김홍빈 도유정 문현정 박민지 박수진 박정길 박채린 배주연 서도원 선정규 송갑숙 신소희 심재우
김진호 김해리 김홍희 도화연 문형일 박민지 박수진 박정수 박채영 배준수 서동엽 선정순 송경숙 신수경 심재혁
김진호 김해선 김화수 류경환 문혜리 박민지 박수현 박정순 박춘걸 배준현 서동완 선현경 송기호 신수민 심정숙
김진화 김해영 김화숙 류기일 문희선 박민희 박수현 박정순 박태자 배지원 서말선 선현국 송명희 신수진 심주영
김진환 김해영 김화숙 류상모 민미리 박범준 박순애 박정아 박태현 배진경 서명완 설경윤 송병수 신승범 심준희
김진희 김해정 김효석 류성용 민병숙 박병무 박순영 박정윤 박택규 배채윤 서미영 설별 송병호 신아린 심해인
김진희 김해중 김효용 류성일 민정미 박병호 박승현 박정은 박하향 배춘경 서미영 설인찬 송봉화 신아영 심효정
김차혜 김향지 김효은 류숙연 민정빈 박보경 박시연 박정은 박한택 배한호 서미화 설종혁 송상협 신연제 심희영
김찬우 김향희 김효은 류순화 민지홍 박보경 박시현 박정은 박해민 백년옥 서민경 설희운 송상희 신연주 아이비
김찬주 김혁준 김효정 류옥곤 민찬송 박보라 박시후 박정택 박향기 백다연 서민석 성경용 송석순 신영희 안규선
김창민 김현경 김효진 류옥하 민하나 박보영 박신예 박정현 박현서 백동숙 서민재 성기강 송선빈 신예운 안명자
김창욱 김현수 김훈진 류재규 민현기 박복영 박신정 박정현 박현수 백명하 서민정 성보금 송선화 신예찬 안문정
김채련 김현숙 김희경 류재숙 박강호 박상언 박아람 박정화 박현숙 백민주 서병로 성사라 송수빈 신운경 안미진
김채령 김현숙 김희령 류지수 박건태 박상현 박아진 박정환 박현옥 백선주 서보금 성숙희 송연지 신운섭 안민주
김채린 김현숙 김희선 류지은 박경례 박샛별 박애성 박정희 박현우 백성준 서부경 성스레 송영옥 신원섭 안민희
김채영 김현실 김희섭 류진동 박경민 박샛별 박양우 박제현 박현진 백송이 서빛나 성열영 송영주 신유경 안병호
김채영 김현아 김희숙 류현미 박경민 박서영 박여울 박종섭 박현진 백수희 서선미 성유림 송용희 신유리 안상분
김채은 김현아 김희숙 마기승 박경오 박서진 박연숙 박종순 박혜리 백승국 서수경 성주희 송유미 신유민 안상원
김채은 김현영 김희영 마성희 박경태 박서진 박연재 박주령 박혜린 백승미 서아영 성준 송윤승 신윤정 안서연

안서연 양인영 오시진 원정인 윤명숙 이강 이동열 이생명 이승미 이윤주 이정희 이채린 이혜인 임은정 장일애
안서현 양재석 오영순 원지현 윤명자 이강년 이동원 이석진 이승연 이윤주 이정희 이채린 이혜정 임재민 장재우
안성우 양재성 오영혜 원지혜 윤미영 이강산 이동진 이석환 이승우 이윤주 이조행 이채연 이혜진 임재영 장정우
안성혁 양재원 오예리 위다윤 윤미화 이강산 이라온 이선경 이승원 이윤진 이종국 이채희 이혜진 임재형 장정환
안소연 양정숙 오예은 위세욱 윤민지 이건우 이로사 이선동 이승주 이윤희 이종민 이철우 이혜진 임정인 장준영
안소연 양정연 오유연 위영선 윤보람 이건주 이명선 이선영 이승준 이은경 이종한 이철호 이혜진 임정호 장지연
안소정 양정호 오윤정 유경 윤상록 이건혁 이명숙 이선옥 이승현 이은경 이종헌 이춘우 이호정 임지연 장지연
안소혜 양준승 오윤주 유경상 윤성미 이경민 이명순 이선재 이승환 이은성 이종호 이춘화 이화숙 임지원 장지원
안수미 양지은 오은선 유경식 윤성임 이경신 이명주 이선정 이승희 이은성 이주령 이충민 이화자 임지윤 장지현
안수정 양지혜 오은주 유경애 윤성채 이경아 이명진 이선화 이승희 이은숙 이주연 이치근 이화춘 임지은 장진섭
안수진 양지혜 오은진 유대영 윤성철 이경은 이명하 이선희 이시복 이은영 이주영 이치면 이효주 임지희 장채윤
안수현 양진아 오의선 유도솔 윤성호 이경진 이명희 이설희 이시연 이은정 이주형 이태규 이후삼 임진권 장한슬
안수현 양찬미 오임수 유민아 윤세영 이경하 이무송 이성령 이시형 이은정 이준우 이태범 이훈 임채광 장현빈
안아름 양하영 오장근 유민주 윤세영 이경하 이무열 이성문 이신영 이은주 이준홍 이태호 이휘진 임채욱 장현숙
안영욱 양하준 오재범 유민지 윤소라 이경환 이미경 이성미 이아름 이은주 이준화 이태훈 이희경 임태섭 장현아
안우현 양해민 오정란 유별 윤소연 이경희 이미란 이성익 이아희 이은지 이지 이태희 이희병 임패티 장형근
안유미 양현주 오정자 유병운 윤소연 이경희 이미란 이성재 이앨리 이은지 이지근 이하경 이희정 임하원 장혜림
안유진 양형인 오정화 유선희 윤소영 이계화 이미란 이성찬 이어진 이은지 이지민 이하나 이희진 임현기 장혜미
안은주 양혜인 오주예 유세리 윤소윤 이고운 이미리 이성혁 이연수 이은지 이지민 이하늘 이희진 임현우 장화인
안은찬 양혜진 오주현 유소담 윤소의 이광미 이미영 이성훈 이연정 이은진 이지민 이하령 이희창 임혜진 장효빈
안재도 양화준 오준혁 유수현 윤소정 이광진 이미주 이성희 이연지 이은진 이지석 이하은 임경진 임효숙 장희순
안재선 양휘서 오지민 유순덕 윤소훈 이국진 이미지 이성희 이영건 이은홍 이지선 이한결 임계숙 임희순 장희순
안정우 어현정 오지복 유승연 윤수영 이규연 이미진 이성희 이영란 이은효 이지선 이한결 임규성 장가림 전경화
안지연 엄소영 오지아 유승찬 윤수현 이근섭 이미혜 이세영 이영미 이이화 이지수 이한나 임기웅 장경아 전동현
안지연 엄소정 오지연 유승철 윤순선 이금숙 이민선 이세영 이영미 이인여 이지안 이한나 임다솜 장경재 전명숙
안지은 엄숙희 오지윤 유승호 윤신영 이금숙 이민숙 이소민 이영수 이자호 이지연 이한나 임다영 장다원 전명숙
안지형 엄영식 오진규 유신애 윤영정 이금자 이민영 이소연 이영숙 이장욱 이지영 이해경 임다혜 장명아 전미선
안철우 엄윤서 오진희 유영경 윤예랑 이길무 이민정 이소연 이영현 이장현 이지영 이해균 임대근 장미경 전미연
안충희 엄태웅 오하나 유영원 윤예주 이길우 이민주 이소연 이영훈 이재걸 이지원 이해진 임대호 장미경 전민규
안태준 엄태호 오현정 유영현 윤예준 이나경 이민하 이소영 이영희 이재민 이지원 이헌철 임동권 장미숙 전병웅
안혁 엄해민 오형석 유왕근 윤원섭 이나리 이믿음 이소정 이예람 이재영 이지원 이혁 임동휘 장미혜 전선영
안혜영 여기탁 오혜주 유은정 윤이나 이나영 이범진 이솔 이예진 이재용 이지은 이현미 임동희 장민주 전세아
안효운 여한별 오혜진 유정민 윤재국 이나현 이병무 이솔잎 이예진 이재준 이지현 이현숙 임미경 장백기 전수정
안효찬 염경준 오효정 유정숙 윤재나 이나현 이병순 이수경 이예진 이재형 이지현 이현아 임미영 장병태 전수진
안희경 염수정 오희경 유정숙 윤재순 이나현 이병준 이수미 이옥수 이재희 이지현 이현우 임봉완 장병호 전수희
안희주 염숙현 오희정 유종선 윤재영 이날아 이보경 이수민 이옥순 이정 이지현 이현욱 임선옥 장보임 전승기
양남국 염아랑 옥동석 유종환 윤정민 이남경 이보라 이수민 이옥순 이정민 이지현 이현정 임성락 장보형 전승아
양미경 염옥주 옥성빈 유준연 윤정의 이남석 이보미 이수빈 이용남 이정민 이지현 이현정 임성민 장비오 전아영
양미녀 염윤희 왕동환 유지연 윤정화 이남순 이보원 이수연 이용순 이정민 이지현 이현정 임소락 장서영 전언배
양미향 염종섭 왕수진 유지연 윤정후 이남윤 이보혜 이수연 이우동 이정민 이지현 이현정 임소영 장서현 전연정
양민정 염철호 왕종지 유진 윤주영 이남희 이복희 이수연 이우림 이정민 이지현 이현정 임소은 장성민 전영진
양새롬 오가영 왕지인 유창복 윤준교 이노을 이봉경 이수은 이우재 이정빈 이지혜 이현주 임수민 장성욱 전예진
양선영 오명희 용향희 유충길 윤준석 이다감 이봉순 이수은 이우진 이정빈 이지호 이현지 임수빈 장세진 전우성
양성모 오명희 우가희 유충열 윤지민 이다경 이분희 이수정 이우찬 이정선 이지홍 이현지 임수애 장수아 전원석
양성보 오미소 우금이 유한울 윤지선 이다운 이상구 이수정 이운석 이정숙 이지희 이현지 임수진 장수임 전윤정
양수용 오민준 우녕인 유현아 윤지현 이다윤 이상규 이수정 이원무 이정순 이진 이현진 임수현 장숙희 전인표
양수정 오상록 우람 유현우 윤지혜 이다해 이상규 이수진 이원재 이정옥 이진명 이현호 임슬기 장순아 전재준
양승두 오선영 우보은 유현정 윤지혜 이다혜 이상기 이수현 이유경 이정옥 이진숙 이형강 임승만 장아름 전주희
양승요 오선화 우상화 유호정 윤진혁 이다혜 이상도 이수현 이유림 이정은 이진영 이형근 임승수 장영미 전지영
양승이 오선희 우성환 유화정 윤태령 이덕선 이상아 이순덕 이유빈 이정은 이진영 이혜경 임영순 장영혜 전지윤
양승헌 오성녀 우종호 육도연 윤한 이도건 이상엽 이순덕 이유정 이정은 이진주 이혜리 임영오 장예진 전진성
양승현 오세연 우철수 윤강현 윤해숙 이도경 이상용 이순애 이유주 이정은 이진혁 이혜림 임영준 장우영 전진오
양연주 오수연 우현주 윤경남 윤현수 이도부 이상윤 이순애 이유진 이정일 이차윤 이혜민 임옥남 장유진 전진이
양영란 오수연 우효선 윤경한 윤혜숙 이도원 이상재 이순옥 이유진 이정임 이창용 이혜성 임유라 장윤진 전하경
양예순 오숙경 원도연 윤관민 윤혜영 이도헌 이상천 이순희 이윤금 이정혜 이창원 이혜숙 임유정 장은경 전하영
양용준 오순자 원복희 윤근수 윤혜진 이동건 이상화 이슬기 이윤성 이정화 이창하 이혜숙 임윤숙 장은경 전현숙
양원경 오슬기 원세미 윤나희 윤효주 이동규 이상희 이슬기 이윤재 이정환 이창하 이혜순 임윤지 장은희 전혜인
양유나 오승아 원아름 윤다예 윤희상 이동근 이상희 이슬기 이윤정 이정효 이창훈 이혜원 임은숙 장은희 정광위
양은경 오승주 원용주 윤동기 은미령 이동빈 이새락 이승명 이윤제 이정희 이채경 이혜인 임은영 장익상 정국희

정금희 정애숙 정지우 조민정 조인성 지승찬 천민호 최서희 최의영 최혜은 한상표 허경미 홍봉화 황보애
정길홍 정여주 정지원 조민철 조인숙 지유나 천보미 최선경 최이진 최효진 한상필 허경희 홍석현 황보재
정나영 정여진 정지윤 조상웅 조자경 지정민 천서경 최선숙 최인용 최희문 한상화 허나교 홍선아 황선욱
정내리 정연경 정지율 조상현 조정민 지호찬 천선혜 최선주 최인화 최희섭 한선휘 허내영 홍선영 황성아
정다운 정연복 정지은 조상현 조정인 진동하 천세희 최선희 최재욱 최희욱 한세빈 허다미 홍성록 황송연
정다은 정연욱 정지희 조선희 조종걸 진민경 천승우 최성용 최재호 최희원 한송이 허란 홍성신 황수민
정다은 정영찬 정진호 조성은 조준성 진선미 천윤심 최성현 최재화 추대영 한송이 허만덕 홍성종 황승빈
정다정 정영희 정채빈 조세연 조준영 진수명 천은서 최소명 최재훈 추배식 한수연 허선영 홍성준 황승하
정다혜 정영희 정채윤 조세형 조지혜 진슬기 천정화 최소영 최정국 추성룡 한수진 허수영 홍성철 황신영
정다희 정옥임 정치연 조소망 조지혜 진영승 천지희 최소희 최정근 추성은 한승연 허수진 홍성환 황용석
정동림 정용대 정필수 조수아 조지혜 진요셉 천해원 최솔 최정묵 추아란 한승욱 허연재 홍세희 황웅상
정동분 정용욱 정하영 조수연 조진미 진우석 최경례 최수아 최정숙 추혜민 한승하 허영섭 홍소영 황유진
정래영 정용하 정한솔 조수연 조진희 진유나 최경만 최수연 최정심 탁하빈 한아름 허윤정 홍수민 황은미
정문희 정우선 정해성 조수영 조충식 진은실 최경배 최수영 최정윤 탁하윤 한언철 허윤정 홍수연 황정재
정미란 정원국 정향옥 조수현 조태영 진인상 최경수 최수정 최정인 태광호 한영숙 허윤정 홍수영 황정주
정미정 정유진 정현승 조수현 조하얀 진재희 최경영 최수정 최정해 태수길 한영옥 허윤지 홍수현 황정희
정민기 정유진 정현승 조수호 조향심 진정석 최경호 최수진 최정혜 편광복 한예나 허은아 홍수희 황지연
정민우 정윤도 정현정 조숙연 조현기 진한별 최고성 최수현 최주희 편석준 한웅수 허정호 홍순거 황지영
정민재 정윤소 정현정 조신애 조현진 진혜린 최광옥 최순예 최준혁 편은진 한유리 허준혁 홍순택 황지원
정민혜 정윤수 정현진 조아라 조현화 진혜원 최규동 최승경 최준형 편효영 한유영 허지연 홍영지 황지인
정보라 정윤용 정현진 조연경 조형남 진홍길 최긍지 최승민 최지연 표기원 한은경 허지은 홍우림 황쾌연
정봉현 정윤혁 정현철 조연아 조형준 진효주 최기용 최승재 최지영 표기현 한은선 허진주 홍유신 황태숙
정상숙 정은경 정혜림 조영동 조형진 차겸 최기화 최신애 최지영 하경진 한은주 허현 홍은기 황태옥
정상훈 정은미 정혜미 조영란 조혜옥 차명리 최나연 최아리 최지웅 하늘 한은주 허현 홍은빈 황현숙
정서하 정은미 정혜민 조영래 조희정 차보람 최다예 최영인 최지혁 하도연 한은혜 허현정 홍은숙 황현숙
정석문 정은선 정혜원 조영미 좌권익 차수빈 최다인 최영진 최지현 하미진 한정민 현경근 홍은주 황현진
정선경 정은선 정혜인 조영숙 주미숙 차수진 최다혜 최예슬 최지현 하민지 한정수 현경래 홍은표 황혜정
정선미 정은숙 정혜정 조영진 주민영 차윤성 최다희 최예진 최지혜 하석우 한정희 현경숙 홍은희 황혜진
정선애 정은이 정혜지 조영훈 주병준 차은교 최단비 최용원 최진수 하성훈 한준수 현경엽 홍정수 황희
정선홍 정의준 정홍천 조예란 주봉애 차은수 최덕희 최우연 최진원 하솔잎 한지아 현동희 홍정아 황희민
정선화 정의진 정화빈 조외영 주선화 차은애 최문호 최우진 최창식 하승우 한지용 현명희 홍정표
정성웅 정인혜 정환석 조원주 주아영 차의림 최미란 최웅락 최창화 하얀 한지혜 현솔 홍종록
정성혜 정재순 정회진 조윤상 주은라 차정란 최미란 최원선 최춘지 하유진 한지혜 현영숙 홍주은
정성화 정재승 정휘재 조윤숙 주인미 차종주 최미선 최원욱 최치엽 하재은 한지희 현우현 홍주이
정세연 정재우 정희섭 조윤영 주정은 차향숙 최미진 최유재 최태윤 하지향 한채옥 현은주 홍지수
정세현 정재은 정희숙 조윤하 주정희 차혜민 최미진 최유지 최한수 하지혜 한향수 현정재 홍지예
정소영 정정숙 정희숙 조은경 주종현 채가을 최미희 최윤실 최한울 한금희 한형원 현지연 홍지우
정송미 정정애 정희영 조은서 주종호 채나영 최민경 최윤원 최해인 한나경 한혜욱 현지은 홍지훈
정수경 정정용 제연지 조은선 주진경 채미자 최민규 최윤정 최현민 한명식 한화수 현하나 홍진주
정수정 정조애 제효경 조은송 주진환 채미화 최병국 최윤진 최현애 한명희 함기성 현혜인 홍창기
정수진 정종진 조근엽 조은영 주채연 채상훈 최병삼 최윤창 최현우 한미정 함영선 현혜진 홍창훈
정슬기 정주은 조내양 조은이 주하은 채수덕 최상남 최은기 최현우 한민영 함영희 홍경의 홍태선
정승철 정주혜 조다은 조은주 주한흥 채윤경 최서룡 최은서 최현주 한민지 함유진 홍규빈 홍현정
정아련 정지민 조문행 조은혜 주혜원 채정한 최서우 최은재 최현주 한붕수 함종민 홍단비 홍혜정
정아윤 정지영 조미경 조은희 지경준 채종일 최서은 최은진 최형우 한삼미 함태인 홍미경 황규리
정아현 정지영 조미소 조의명 지관우 천동규 최서은 최은혜 최혜선 한상석 함현정 홍보경 황도연

(주)동그라미프로젝트
(주)아름다운공간
(주)제우스
(주)한일메디피아
3h스마트지압침대
Hubbard Ande
JIN JIAYAN
OH KYUNGMEE PARK
PENCU SILVIA
Su Yi Rou
ZHAO JUNXIU
경복종합
권안젤라
김세영_김세준
김정경,김정후
디자인씨앗
마을과숲건축사사무소
박김서진
백양문화
본드림한의원
서울예담치과
서원산업
서촌명자
선우민찬
선우영준
성은교회
세화산업
스팽글러 애셔 아람
안스헤어(박태정)
에레나엘가스탈라
연희,소연
오명희(로마건설페인트)
오빠차 허민
이상순(남광모피)
이설경, 이하임
전요안나
제이앤제이쉬핑 주식회사
조아민, 조서린
주식회사 네오리서치
쩐티투이아인
창녕베어링(진동포)
창신산업주식회사
탑랜드여행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울트레딩
허준앤심내과
효경산업

10주년 특별후원 안내

10살을 맞이한 메디피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응원해 주세요!

기존 정기후원 회원님들 중 후원금을 1만 원 이상 증액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메디피스 1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LED 우드 탁상시계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신청 자격:
기존에 메디피스 정기후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방법: 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 (medipeace@medipeace.org) 문의

신청 기간: 2019년 6월 30일까지

Medipea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기후원 문의 및 신청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452388 예금주 (사)메디피스

웹사이트: https://medipeace.org

사업자등록번호: 107-82-13535 (지정기부금단체)

대표전화: 02-2068-4679 | **팩스:** 02-6008-4079

이메일: medipeace@medipeace.org

주소: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401호